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우리가 다녔던 랑가라 컬리지는 공항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도보로 5분 거리에 랑가라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동시 편리합니다. 대학의 시설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좋습니다. 대학 내 사람들은 친절하며 적응하기 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내 편의시설도 많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적습니다.
수업	수업은 9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최대한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조당 3,4명씩 배정하여 그룹 토킹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일본·캐나다의 문화를 비교해보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대한 상황극을 통해 실용영어를 익히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셨으며 재미있는 수업을 많이 진행하셨습니다. 과제의 경우는 학교에서 제공한 바인더 혹은 저널을 쓰는 것 정도로 간단한 것입니다. 수업준비는 따로 할 것은 없고 바인더를 꼭 챙겨 다니셔야 합니다. 조별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일본인 학생들과도 많이 이야기 해봄으로써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고 소통을 위해 주로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필드트립	-discover vancouv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밴쿠버 시내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의 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약은 잔잔한 물 위에서 배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습니다. 팔이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주변 풍경이 너무 예쁘며 의미있는 액티비티인 것 같습니다. -vancouver museum을 가서 밴쿠버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aquarium을 가서 여러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휘슬러 트립을 갔었는데 날씨가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려 하이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추울 수 있으니 겉옷은 필수입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반팔 및 겹칠 옷을 챙겨야합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homeless people이 많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숙소	홈스테이 방, 화장실, 주방 등 시설은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학교와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역과도 가까이 위치하여 편리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홈스테이 마더 및 다른 가족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밴쿠버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홈스테이 마더가 밴쿠버의 여러 관광지를 데려가 주어 관광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홈스테이 규칙의 경우에는 모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홈스테이였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O) 기타 () 아침은 집에서, 점심은 집에서 챙겨온 도시락, 저녁은 주로 외부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교통	스카이트레인, 버스, 씨버스 등 교통이 잘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맵을 이용하면 이동하기에 수월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비행기	1,728,900원	왕복 항공료
용돈	1,000,000원	생활비, 외식비용, 관광비용 등
홈스테이션물	30,000원	김, 마스크팩 등
이외	250,000원	
합계	3,000,000원 이내	

5. 출국 전 준비사항

1. 기본적인 영어회화능력을 갖추기.
 2. 홈스테이 가족들과 친해질 수 있을만한 계기를 만들고 파견 전 홈스테이 선물을 간단하게 준비해가기
 3. 휘슬러 트립을 갈 때는 두꺼운 옷과 운동화를 준비하기
 4. 감기약 및 이외 상비약을 구비하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5. 비가 조금씩 내리기 때문에 우산 챙기기
 6. 여름이라도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크림 챙기기
 7. 세면도구, 수건 등 챙기기
- 캐나다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빨래를 하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건 및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8. 캐나다 유심 구입하기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번 단기연수를 통해 영어회화를 많이 해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지 내보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본 연수를 통해 일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에 비해 홈스테이 가족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고 하루에 30분 정도 홈스테이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어회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고 틀리더라도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영어실력이 월등히 향상되었다는 것보다는 입을 떼게 되었고 회화에 의욕을 가지게 된 것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가 월등하기 보다는 다들 배우러 온 것이고 비슷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눅들을 필요도 없어 자신감을 가지는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일상을 즐기면서 힐링 할 수 있었고 여러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연수를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english bay
	
stanley park	vancouver museum
	
whistler trip	victoria island 주의사당